

잇따른 비·태풍에 극조생 감귤 ‘위기’

자연재해로 부패과 심각
수확 앞둔 농가 민심 흉흉

“올해 생산량 많지 않고
상품가치도 떨어져 걱정”

출하가 한창인 제주산 극조생 감귤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수확철을 앞둔 잇단 태풍과 폭우, 돌풍·우박 등 잦은 악기상으로 부패과, 열과, 역병 등의 발생은 물론 이에 따른 생산량이 줄고 상품 가치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7일 제주도와 농협 등에 따르면 최근 극조생 감귤의 과실 부패가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방제가 필요하다. 부패 원인은 잦은 폭우에 의한 침수 피해로 흙속에 있던 역병균이 확산되며 감염되는 역병, 비가 많이 와서 발생해 과실이 깨져버리는 열과현상, 그리고 극조생 감귤 껍질이 얇아 강풍에 의한 상처와 발생 등이다. 그러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 제도 강화로 농가에서의 살균제 방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이날 제주시 동부지역의 과수원에서는 극조생 감귤 10개 가운데 3~4개 부패한 경우도 목격됐다. 심지어 많은 양의 감귤이 야적지에 버려진 곳도 확인됐다.

감귤농가에서 만난 A씨는 “예년과 달리 올해는 수확철을 앞뉜 너무



계속된 비와 잇따른 태풍 등 악기상으로 썩음 피해를 입은 감귤(작은 사진)이 쏟아지는 가운데 7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한 사유지에 상품성이 떨어지는 많은 양의 감귤이 버려져있다.

많은 비가 내려 팔 수 있는 상품 생산량이 많지 않다”며 “한창 수확해야 할 감귤이 나무에서 그냥 썩어가고 있어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나무에 달린 감귤 상처과와 부패과를 따서 땅에 버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산도의 경우 잦은 비날씨로 예년과 달리 낮은 것도 문제다. 제배능가는 물론 포전거래를 한 상인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제주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감귤 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 과수가 올해 곳은 날씨로 상당부분 피해를 입어 농가의 시름이 깊다”며 “과실 부패를 막기 위한 방제 등 관리 노력이 중요해 현재 마을별로 농약방제 요령 및 관리 등에 대해 사전 조치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극조생감귤이 일반 노지감귤 수확과 맞물리기 때문에 비상품 출하를 막고 노지감귤의 경우도 앞으로 수확까지는 40~

50일이 남아 있어 막바지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제주도는 10월 한달간 극조생 저급품 감귤의 철저한 시장격리를 위해 18억원을 투입, 물량 1만여t을 대상으로 ‘극조생감귤 저급품 조기 농장 격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조합원은 소속 농·협으로, 비조합원인 경우는 소유 농장 인근 지역농협으로 하면 된다.

백영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 공립학교 특수교사 확보율 72.3%

전국 평균은 74.8%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공립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담당교사 수가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정의당, 창원시 성산구) 의원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학생 4명 당 특수교육 담당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공립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 교육 받는 장애 학생이 6만3621명인데, 특수교사는 1만3845명으로 학생 4.6명 당 교사 1

명이 배치되는 데 그쳤다. 법정기준과 비교하면 배정정원 확보비율이 86.8%에 머무른 셈이다.

제주지역 상황도 마찬가지다. 도내 공립학교의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은 법정기준 대비 2018년 66.1%에서 올해 72.3%로 늘었지만 전국 평균(74.8%)에 못 미쳤다.

여영국 의원은 “제대로 된 통합교육이 이뤄지려면 장애학생을 단순히 일반학급에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같은 학급 구성원으로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줄 특수교육 전문교사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며 “시급히 특수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도교육청, 읍면 고교 한국어 IB학교 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한국어 IB 학교’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도내 읍면지역 고등학교 1곳을 선정해 2022년부터 IB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7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한국어 IB 학교 공모 신청 대상은 도내 읍면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등 총 9 곳이다. 제주시 지역에선 세화고와 애월고, 제주의국이고, 함덕고, 한림

고, 서귀포에선 대정고와 대정여고, 성산고, 표선고가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오는 11월 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를 대상으로 심의과정을 거쳐 11월 중순쯤 학교 1곳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돼 제주특별법에 따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적용받으며 IB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김지은기자

제주서초 일원 안심마을 ‘용담하늘길’ 조성

도, 환경디자인 사업 실시
벽화타일 제작 프로젝트도

유도하기 위한 교육과 놀이 등도 병행하고 있다.

이외에 보행안전을 위한 도로보수 정비, 골목길 태양광 센서등, 로고젝터(조명을 바닥에 투사해 안내하는 장치), 안심비상벨, CCTV 설치와 마을지도 안내판, 바닥이점표, 가림막 등의 안전시설물 도입 등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한다. 오은지기자



서귀포의료원 위탁운영 추진 ‘가시밭길’

도, 제주대학교병원 위탁 타당성 평가결과
진료협력체계 방안 제시… ‘5자협의체’ 구성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은 병원간 중증·응급환자 진료협력체계 개선 등을 통해 여건을 조성한 뒤 본격 추진해 나가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위탁운영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서귀포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서귀포의료원 개선평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타당성 평가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타당성 평가연구 결과 제주대학교병원 전문의 인력자원 부족 등의 이유로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병원 위탁운영은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서귀포의료원 등의 현황과 연구결과를 종합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협력체계 개선 등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야 할 지원방안 3가지를 제시했다. 사실상 위탁운영을 위한 연착륙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우선 진료협력체계 개선과 관련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학교병원(제주시 소재 다른 병원도 포함)간 클라우드 기반 진료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급성심근경색 등 서귀포의료원에서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골든타임 질환자에게 주진료경로(Critical Pathway)를 개발, 운영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중환자 병상 확보 및 가동을 위한 지원 등이다.

두 번째 지원방안은 제주대학교병원 소속 진료 교수 및 전문의가 서귀포의료원에 장기간 파견돼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질적 수준 향상

을 이끌 수 있는 10명 이상의 대학병원 진료 교수와 전문가 파견되거나 채용하는 것이다.

제주대학교병원 간호·행정 등 전문인력 장기파견으로 서귀포의료원의 조직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지원방안으로 꼽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간 중증·응급환자 진료협력체계를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하고 제주도, 도의회, 서귀포시,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이 참여하는 ‘위탁운영 5자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위탁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협의체 운영 및 진행 계획, 구성 시기와 내용 등은 협의체 참여 주체간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윤기자

경 제 축

제주도 화물운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

제19회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

“교통사고 없는 청정 제주도 만들기”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제주지부’가 함께 합니다.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제주지부
자문위원장 **고영철**

자문위원 **고갑진**
자문위원 **김영선**
자문위원 **정성택**
자문위원 **한봉심**

자문위원 **고용석**
자문위원 **김형수**
자문위원 **정상현**
지부장 **이양운**